

감로甘露의 실체를 밝힌다 오라와 다른 빛으로 영생의 필수물질

감로 또는 감로수는 불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이다. 청법가에도 감로의 법을 설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부처님 전에 찻물공양을 올릴 때 그 찻물을 감로수라고 한다. 열반경에서 감로라는 단어를 찾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나온다.

중국어 성경 '이슬: 甘露로 표기

이렇게 중요한 감로가 불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전에도 나온다. 성경에도 감로수가 있다. '이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슬을 중국어성경을 보면 '감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참조: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



또한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고, 격암유록에도 나온다. 먼저 도덕경 32장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자.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以降甘露 民莫之令以自均" 능히 도를 지키는 군주가 나하면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되어 찾아들어 천지가 서로 화합하여 감로를 내릴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고르게 된다

그 다음에는 격암유록 해인과 나와 있는 것을 보자. "秦皇漢武求下 不老草不死藥 어디대소 虹霓七色雲霧中 甘露如雨 海印이라 火雨露三豊海印이라." 강증산 선생이 지으신 중화경 88장에도 나온다. "佛日出時에 降法雨露강법우로 世間眼目이 今茲始開라 有緣者皆悉聞知 하리라 好道遷佛하여 佛成人事하리라"

감로: 불사약

네이버 백과사전에 감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 [네이버 지식백과] 감로 [甘露] (종교학대사전, 1988. 8. 20)

"고대 인도, 중국에서 전승되는 영약. 인도에서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아미타라로 <죽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말이었는 데, 인도 최고의 고전 『리그 베다』에서는 뜻이 바뀌어서 불사가 되는 것, 신을 의미

하고, 거기에서 신들의 음식물이나 음료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래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 인도의 전승에서는 가끔 소마 주스(마라는 식물에서 만든 음료, 술로 신에게 바친다)와 동일시 되며, 꿀과 같이 달고 만명의 약이라고 한다. 한문 불전에서는 감로라고 번역되어서 도리전에서 내리는 비, 단약으로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고, 장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불사>라는 의미에서 영원의 생명을 가진 불(佛)의 가르침, 또는 불(佛)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밀교 경전에서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amrita의 속어형이라고 해석하고, 아미타불과 감로를 동일시하고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불사약(不死藥)이라는 말이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이름만 다르지 감로와 동일한 의미의 술어가 많이 있

다. 회춘의 샘(Fountain of youth),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 생명의 묘약(elixir of life), 생명물(Water of Life) 등이다.

감로실체 최초로 밝힌 분은?

문헌상으로는 나오지 않는 감로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분이 있다. 승리제단의 조희성 님이다. 그분이 강론할 때 감로가 나온다고 한다. 감로는 카메라에 촬영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낸다.

감로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로는 광선이다. 그런데 세상의 광선은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감로의 광선은 곡선으로 움직인다. 둘째, 광선이지만 맛과 향이 있다. 태양빛이 맛과 향이 있나? 없다. 그런데 감로의 광선은 맛과 향이 있다. 단맛과 백합화꽃 향기가 난다. 셋째, 감로사진을 승리제단에서는 수천 수만 장을 보관하고 있다. 감로의 실체를 궁금하게 여긴 많은 분들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들은 불신의 시대에 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끝으로 감로가 오라(Aura: 생체에너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라는 고주파활영기에 의해서 찍힌 것이다. 그러나 일반 카메라에는 포착이 안 되며 주파수가 높은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다. 오라는 옛날 소련의 키틀리언이라고 하는 사진기가 자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로도 오라와 같은 종류라고 봐야 하지만 매우 강한 빛이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에도 찍히게 된다. 감로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불로장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질임을 알고 승리제단에 와서 감로를 받아 먹어야 할 것이다.*

입 외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의광조사물-빛을 임의로 비추는 방법- 이런 이미지들을 발생케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임의광조사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18년간 사진분석가로 일하면서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플래시 케이블이나 손가락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플래시 빛의 반사로 생기는 현상이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그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로든은 감로사진은 플레이어현상, 임의광조사 및 빛의 반사로 생기지 않은 자연 그대로 찍힌 것이라고 감정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1994년 재판에서 감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은 어떤 근거로 허위 판단을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도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5>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다”

부활을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성경이 영적 말이라면 부활도 영적 부활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다.

고로 산 사람의 몸이 죽은 자의 영들의 무덤이다.

그런고로 무덤이 되는 죄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면, 무덤이 없어졌다

그런고로 무덤도 영적인 무덤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죄값이 사망인고로 무덤이란 사망을 뜻한다.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자의 영들이 들어 있는

가 되는 고로 마귀 영속에 갇혀있는 하나님께서 석방되어 부활했다가 되는 것이다. 이 역사는 육천 년간 마귀 옥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석방되어 부활하는 역사다.*

행복한 노년 준비

치매예방 프로젝트5 헛것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볼 것인가? 『동의보감』에서는 사수(邪祟) 병, 헛것을 보거나 듣고, 횡설수설 헛소리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병이라 합니다. 보통 귀신 씌운 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병인데, 사수에 들린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웃고 노래하고 시를 읊기도 하고, 개울에 앉아 있거나 더러운 것을 주워 먹기도 하며, 옷을 다 벗고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보통 사람은 가지 못하는 높은 곳과 험한 곳을 평지처럼 다닙니다. 또 괜히 성내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망상, 우울증 등 정신행동 증상을 보인다면 서양의학적으로 레비소체 치매의 초기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비소체 치매는 초기에 뇌의 후두엽 부위가 손상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의 후두엽 부위가 손상되었는가를 알아야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이기에 때문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진단명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증후군이기에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과 원인은 생각 외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전증(癡癡)과 유사하나 전증은 아닙니다. 외부에도 자다가 기우에 잘 놀리고 꿈에 귀신과 성교를 하며 열도 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앞으로 있을 화와 복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남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것도 사수의 증상입니다. 『동의보감』은 귀신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는 설을 부정합니다. 대신에 기혈(氣血)이 몹시 허하고 정(精)과 신(神)이 부족하거나 담화(痰火)의 작용으로 생긴 현상으로 봅니다. 즉, 이상한 헛것이 보인다는 것은 다 정 비슷한 경우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플래시 케이블이나 손가락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플래시 빛의 반사로 생기는 현상이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그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악히 들어왔던, 고질적으로 잘못된 생활양식과 스트레스에 따라 비롯된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질환이 치매의 원인일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장애나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장애 등 내분비 질환 등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약물 남용과 알코올 중독, 흡연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엔 제대로 된 해법(완치)을 찾는 접근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왜 헛것을 보고 이상행동을 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과 과정도 살펴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된 알코올성 치매는 두뇌에 필수적인 비타민 B 부족과 관련이 있고, 알콜과 내분비 호르몬과의 상호화학작용에 의해 악성분비물화된 여서 그런 것은 아니며, 원기(元氣)가 극도로 허약해져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도한 음주 습관을 고치면 알코올성 치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듯이,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요인들을 고치면 노년에 치매로 가족과 지인들을 못 알아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의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주호 기자

예를 들어 환각이나 수면 이상행동,

감로사진감정서 중요내용



로버트 J. 그로든은 유명한 사진가이자 작가이다. 로버트는 1975년부터 미국 하원의 사진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정치암살 관련 하원선발위원회의 사진 보좌자문역을 맡았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사진증거물의 진위에 관한 법정 증언을 요청받았으며, 그는 사진전문가로서 일천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고 케네디 암살사건 사진증거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J._Groden

그의 감정서는 "이날 나는 희고 붉은 흐릿한 이미지들이 찍힌 사진 10장과 네가티브 원판 필름 15개를 검사했다"고 시작

하고 있다(우측 사진 참조). 그는 "네가티브 원판들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았다. 허튼 이미지들은 사진에 찍힌 자연 그대로 이고 촬영 후에 첨가되지 않았다"며 조작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흐릿한 이미지들(감로)은 거의 모든 네가티브 원판에서 완전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진의 조작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였고, "흐릿한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움을 보아 렌즈플레어를-카메라 렌즈 조직 내에서 발생한 빛의 산란현상- 이런 이미지들을 발생케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플레이어 현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흐릿한 이미지들이 원판 프레임 안에만 존재하고 프레



본부제단 12월 성적 1등 4지역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4지역 이영애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 *구역 1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2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 3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2020년 1월 7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성적에 대한 시상 이 있었다.

-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 2등: 정수운 승사
- 3등: 안경미 권사*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